

‘한국 최고 골퍼’는 “세리냐 捰 인비냐”

미국 ‘골프채널’ 비교 기사 박세리 “한국인의 자부심” 박인비 “올림픽서 금메달”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이 18일 박세리(43) 도쿄올림픽 여자대표팀 감독과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박인비(32)를 비교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최고의 골퍼 선수를 가린다는 것은 케냐에서 최고의 마라톤 선수,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를 정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박인비가 16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 한국 선수로는 박세리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을 달성하면서 박세리 감독과 박인비의 업적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 것이다.

이 기사는 박세리 감독에 대해 “한국에서 박세리의 위치는 마치 성직에 비유할 만큼 절대적”이라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선수로 남



지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대표팀에서 함께한 박인비(왼쪽)와 박세리 감독(오른쪽)이 코스 공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던 1998년 US오픈에서 우승,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고 골프를 넘어 한국인의 삶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기술했다. 박인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박세리 감독과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다. 박인비가 박세리 감독의 1998년 US오픈 우승 때처럼 한국에서 국민적 감동을 안긴 것은 아닐지 몰라도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업적을 이룬 여자 선수는 박인비가 유일하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다. 박세리 감독은 LPGA 투어 통산 25승에 메이저 5승, 박인비는 20승

가운데 메이저를 7승으로 장식했다. 올해의 선수는 박인비가 2013년에 한 번 했고, 신인상은 박세리 감독이 1998년에 받았다.

평균 타수 1위는 박세리 감독이 2003년에 한국 선수 최초로 차지했고 박인비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1위에 올랐다. 상금왕은 박인비가 2012년과 2013년에 1위를 했다.

박세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문을 열었다면 1988년생 박인비는 미국에서 투어를 평정하며 ‘세리 키즈’의 대표 주자로 활약한 셈이다.

이 기사는 물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이 기사는 한국 골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세리와 박인비는 모두 한국 골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것은 마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비교하며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따지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뛰다면 텍사스에 남고싶다”

추신수, 텍사스와 마지막 해 재계약 희망… 감독 ‘긍정적’

코리안 메이저리거 ‘말형’ 추신수(38·사진)에게 올해는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7년 장기 계약 마지막 해다.

아직 재계약 논의는 없지만, 추신수는 내년에도 메이저리그에 남는다면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싶다고 희망했다.

18일(한국시간) 텍사스 지역지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에 따르면 추신수는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있는 텍사스의 스프링캠프 훈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몇 년은 더 뛸 수 있다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2013시즌 종료 뒤 텍사스와 7년 1억3000만달러에 계약했다.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연봉은 2100만달러다.

추신수는 내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려면 그 팀은 텍사스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텍사스가 파산하게 만들

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텍사스와 재계약한다면 과도한 연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은 “텍사스의 톱타자로서 추신수는 여전히 최고의 옵션”이라며 “내년 시즌에도 그를 대체할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추신수는 텍사스에서 6시즌을 뛰면서 출루율 0.36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개인 한시즌 최다인 24홈런을 포함해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쳐냈다.

외야수 노마르 마자라가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되면서 추신수는 올 시즌 지명타자로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나는 추신수를 정말로 높게 평가한다”며 “추신수가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체력적으로 여전히 많은 시즌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이어 “우리가 그(추신수)와 재계약 시도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성용, 카타르·미국·스페인 ‘저울질’

국내행 무산 후 행선지 관심 거취 이달 안에 결정될 듯

프로축구 K리그 복귀가 무산된 기성용(31)이 차기 행선지를 두고 스페인인 미국, 카타르리그 사이에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기성용의 이적 상황에 정통한 측근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성용 측이 스페인과 카타르, 미국프로축구(MLS)의 여러 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달안에 차기 행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당초 독일과 포르투갈 리그 진출도 염두에 뒀지만, 이들 리그의 이적 마감 시한이 지나면서 차기 행선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과 카타르, 미국으로 좁혀졌다.

이 측근은 스페인 2부의 SD우에스카로의 이적이 확정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팀도 결정된 건 없으며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틀 안에 있다”고 말했다.

우에스카는 기성용에게 올 시즌

잔여 3개월만 뛰는 단기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스카는 비록 2부 리그에 있지만, 현재 4위에 자리해 있어 라리가(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또한 일본인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가 몸담고 있어 기성용이 적응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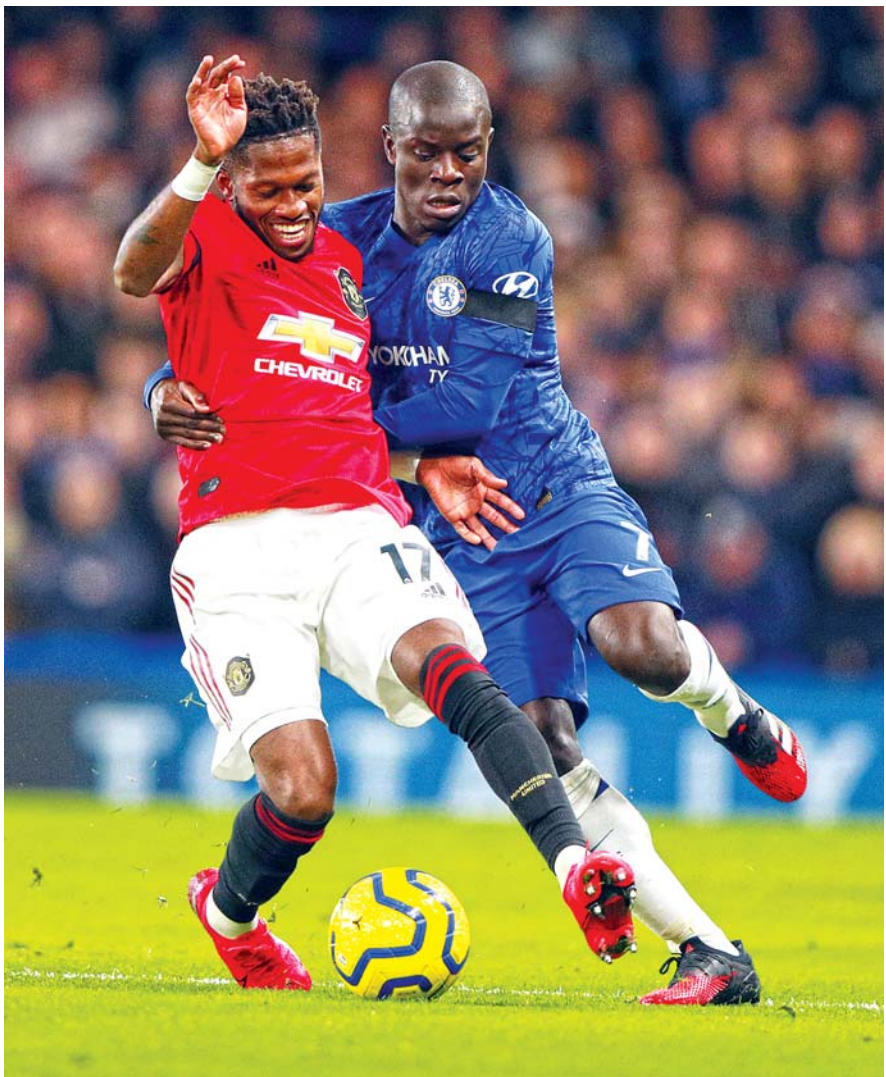
11년간 뛰어난 유럽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우에스카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 무대 역시 다섯 살 딸을 둔 아버지 남편인 기성용에게 교육환경 등 여러면에서 장점을 가진 선택지다.

카타르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8시즌 160경기를 소화한 기성용에게 후한 연봉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후반기로 접어든 기성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잉글랜드 뉴캐슬과 결별한 기성용은 FC서울, 전북 현대와 협상하며 국내 복귀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맨유, 챔스가 보인다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텐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9-2020 EPL 2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경기에서 맨유가 첼시를 2-0으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맨유는 7위에 오르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첼시와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좁혔다. 연합뉴스

레전드 골키퍼 ‘카시야스’ 스페인 축구협회장 도전

‘레전드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39)가 선수 생활을 끝내고 스페인 축구 최고 행정가에 도전한다.

카시야스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페인 축구협회장(RFEF)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모두 하나 돼 우리 협회를 세계 최고 수준인 스페인 축구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라고 출사표를 냈다.

포르투갈 1부리그 FC 포르투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훈련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카시야스는 협회장 선거 출마와 함께 선수생활도 마무리 한다.

카시야스는 2015년 포르투로 이적하기 전까지 스페인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에서 16년간 뛴 세계적인 골키퍼다.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725경기에 출전해 세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5번의 프리메라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축
취 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강 승 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 원 장 모 임

축
당 선
MG 신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인 천

신제주새마을금고 제14대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 가 일 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